

6: 일본에서 익숙했던 ‘아트’와 세계가 말하는 ‘ART’는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아트 시장이 오랫동안 ‘팔리기 쉬운 것’과 ‘친숙한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일본만의 풍부한 시각문화가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일러스트, 디자인, 캐릭터 문화 등 일본의 표현력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ART 마켓에서는,

“이 작품이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작가는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가 훨씬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즉 단순히 아름답거나 인기 있는 것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시대와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까지 포함해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높게 평가되는 작품이 해외에서는 거의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일본에서는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작품이 세계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술을 사회 안에서 어떻게 위치시켜 왔는가”라는 시장 구조 자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갤러리와 백화점 역시 ‘잘 팔리는 것’을 중심으로 시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관과 성공 경험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ART란 무엇인가”를 정면으로 질문하는 전시가 일본에서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는 이미 ART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인간의 가치관과 사회 자체를 움직이는 존재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이제 단순히 ‘잘 팔리는 작품’을 나열하는 시대에서,

“왜 이 작품이 존재하는가?”

“왜 이 가치가 공유되는가?”

를 고민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가 그 전환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